

일부 치위생과 학생들의 취업준비행동에 관한 연구

신선행

삼육보건대학교 치위생과

A study on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in the dental hygiene students

Seon-Haeng Shin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Sahmyook Health University, Seoul, Korea

Received: October 2, 2018
Revised: November 13, 2018
Accepted: December 14, 2018

Corresponding Author: Seon-Haeng Shin
Sahmyook Health University, 82 Mangu-ro, Dongdaemun-gu, Seoul 02500, Korea
Tel: +82-2-3407-8622
Fax: +82-2-3407-8639
E-mail: haeng5355@hanmail.net

*This study was carried out in 2018 with the research fund of Sahmyook Health University.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influences on employment preparation in dental hygiene students.

Methods: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was completed by 386 dental hygiene students in South Korea from November 1 to 30, 2016. For data analysis, the study used independent t-tests, one-way analysis of variance,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among others.

Results: Students with higher grades tended to have major satisfaction, instruction participation, and employment preparation ($P < 0.001$). Higher parental monthly income was related to higher major satisfaction ($P < 0.001$). Employment preparation was significantly positively related to major selection motive, major satisfaction, and instruction participation.

Conclusions: In order to encourage dental hygiene students to prepare for employment, it is necessary to create a better academic environment and develop a variety of employment preparation education programs. I think that the active interest of the country, society, school, and family will have a positive impact on employment preparation.

Key Words: Employment preparation, Instruction participation, Major satisfaction, Work value

서 론

장기적인 경기불황으로 인한 청년실업률이 증가되면서 대학생들의 취업난은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다양해진 노동시장의 환경 하에서 청년층은 자신에게 맞는 직업 선택요인을 중심으로 취업하려 하지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청년실업의 고착화는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에 다른 연령대의 고용동향과는 별도의 관심을 가져야 한다.

통계청조사¹⁾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년실업률(20-29세)은 2016년 9.8%, 2017년 9.9%, 2018년 5월 기준 10.6%로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표상의 실질적 수치보다 아

르바이트생, 대학원생, 구직단념자 등을 포함한 체감실업률은 더 높을 것이다. 최근 정부에서는 청년 실업문제를 국가,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청소년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대학 교육정책에 있어서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국제적 수준의 지식과 기술을 가진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데 교육목표를 두고 대학의 자율화를 확대하여 이에 따른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확보와 국제적 수준의 고등교육 질 보증 체제 확대에 대한 대비,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학 자체평가제와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제를 도입하여 적극 추진 장려하고 있다.

이러한 대학 자체평가 및 대학기본역량진단에 있어 중요한 평가지표는 학생들의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율, 교원확보율, 학사관

리, 교육과정 운영, 장학금 지급률, 학생 교육투자, 등록금 부담 완화지수 등이 해당된다. 이러한 평가지표 중 학생들의 취업률은 대학의 경쟁력과 대학자체평가 및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 있어 중요한 지표일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대학 선택 및 전공선택에 있어서도 중요한 결정 요인 중의 하나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내 대학의 전공선택동기와 관련된 선행연구^{2,3)}에서도 학생들은 전공을 선택함에 있어 취업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현재 청년실업률이 사회적 문제가 됨에 따라 학생들은 대학 선택이나 전공선택에 있어 학문의 심오한 이론보다는 졸업 후 취업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더 중요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청년 취업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사회적 측면에서의 실업 대책뿐만 아니라 학교로부터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을 원활하도록 하는 학교 측면의 교육적 노력과 지원이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⁴⁾.

또한 우리나라는 출산을 저하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교육시장 개방, 대학 선택의 다양화, 청년실업 증가, 대학구조평가를 통한 대학 정원 감축과 최하위 그룹의 퇴출 등 사회 전반의 변화를 야기시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대학생들의 의식구조뿐만 아니라 직업가치관을 변화시키고 있다. 직업가치관은 개인이 직업을 통하여 충족하고자 하는 욕구나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학생들의 전공선택이나 직업포부 및 직업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⁵⁻⁷⁾.

대학생 시기의 학생들은 대학생활 동안에 사회적 독립, 인생관 확립 그리고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직업선택과 같은 어려운 성인기 과제에 직면함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선택하고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취업준비행동이 요구된다. Han⁴⁾의 연구에서 대학생의 직업가치관은 취업준비행동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수업참여도가 높은 학생이 전공만족도도 높고 취업준비에도 적극적으로 행동하였다. 대학 경쟁력의 중요한 지표인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대학 내의 취업특강, 취업캠프, 해외취업 등과 같은 각종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나 일부 학생들이 전공선택에 대한 부적응, 불만족을 겪으면서 향후 진로선택의 불안과 가치관 혼란을 겪고 있다⁸⁾ 교육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고 하겠다. 취업준비행동과 관련된 선행연구⁹⁻¹¹⁾는 있었지만 학생들의 미래 직업과 관련된 심리적, 인지·태도적, 행동적 요인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일부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심리적 변인인 직업가치관과 전공선택동기, 인지·태도적 변인인 전공만족도, 수업참여도, 행동적 변인인 취업준비행동과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치위생 진로교육 및 취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하였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6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국내 3년제 3개 대학 치위생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연구자의 편의에 따라 무작

위로 추출하여 자기기입식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실시 전에 연구에 대한 취지를 설명한 후에 구두로 설문조사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 본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을 선정하였으며, 표본 수는 G*Power 3.1.9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효과 크기 0.25, 검정력 0.95, 유의 수준 0.05로 하였을 때, 최소 표본 수는 360명이 산출되었고 탈락자를 고려하여 390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이 미비하여 분석에 사용할 수 없는 4명을 제외한 386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 사용한 설문지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설문지 내용은 일반적 특성 3문항(학년, 종교, 부모 월소득), 직업가치관 7문항(급여, 명예, 근무환경, 능력, 성취감, 봉사, 적성), 전공선택동기 8문항(적성, 흥미, 재능, 장래직업, 인기도, 사회적 인식, 권유, 성적), 전공만족도 6문항(교과과정 2문항, 교육 2문항, 전공인식 2문항), 수업참여도 4문항(예습, 질의, 복습, 집중도), 취업준비행동 6문항(경력, 외국어습득, 면허취득, 학점관리, 특강수강, 취업 프로그램 참여) 총 3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직업가치관, 전공선택동기, 전공만족도, 수업참여도, 취업준비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선행연구⁴⁾의 설문 문항을 참고하여 본 연구목적에 적합한 내용의 문항으로 수정, 보완하였다. 직업가치관, 전공선택동기, 전공만족도, 수업참여도, 취업준비행동에 대한 문항 평가 방법은 각각 리커트(Likert)의 5점 등간척도로 이루어졌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직업가치관, 전공선택동기, 전공만족도, 수업참여도, 취업준비행동 문항의 신뢰도 검사 결과, Cronbach's $\alpha=0.83, 0.89, 0.91, 0.71, 0.80$ 으로 나타났다.

3. 통계분석

수집된 모든 자료는 SPSS 24.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전공선택동기, 직업가치관, 취업준비행동의 전반적 경향은 빈도, 백분율, 평균을 분석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업가치관, 전공선택동기, 전공만족도, 수업참여도, 취업준비행동 각각의 차이 분석은 독립표본 평균검정과 일원배치 분산분석, Scheffé 사후 검정을 실시하였고, 각 변수 간의 상관성 분석, 직업가치관, 전공선택동기, 전공만족도, 수업참여도, 취업준비행동의 영향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성 검정은 $\alpha=0.05$ 로 하였다.

연구 성적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학년별로는 1학년 33.2%, 2학년 36.0%, 3학년 30.8%이었다. 종교는 ‘없다’ 23.1%, ‘있다’ 76.9%, 부모 월소득은 ‘200만원 미만’ 14.8%, ‘200-400만원 미만’ 58.8%, ‘400만원 이상’ 26.4%를 나타내었다(Table 1).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업가치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체 직업가치관을 살펴보면, 학년별로는 1학년 3.82 ± 0.60 , 2학년 3.92 ± 0.43 , 3학년 3.85 ± 0.51 이었다. 하부영역 요인으로 외재적 직업가치관은 1학년 3.97 ± 0.66 , 2학년 4.10 ± 0.43 , 3학년 4.02 ± 0.56 이었고 내재적 가치관은 1학년 3.70 ± 0.65 , 2학년 3.78 ± 0.55 , 3학년 3.72 ± 0.58 로 조사되어 집단 간에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종교유무에 따른 내재적 가치관은 ‘있다’ 3.88 ± 0.55 , ‘없다’ 3.69 ± 0.60 로 종교가 있는 집단에서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P < 0.05$), 부모의 월소득에 따라서는 집단 간에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었다(Table 2).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선택동기

전공선택동기를 분석한 결과, 학년별로는 1학년 3.06 ± 0.52 , 2학년 3.11 ± 0.57 , 3학년 3.24 ± 0.53 으로 조사되어 학년이 높을

수록 전공선택동기가 긍정적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5$). 종교유무에서는 ‘있다’ 3.20 ± 0.64 , ‘없다’ 3.11 ± 0.52 , 부모 월소득은 ‘200만 원 미만’ 3.04 ± 0.58 , ‘200-400만 원 미만’ 3.13 ± 0.51 , ‘400만 원 이상’ 3.18 ± 0.59 를 나타내었다. 하부영역 요인으로 개인적 동기는 남자 2.82 ± 0.90 , 여자 $2.960.73$ 이었고, 학년은 1학년 2.87 ± 0.74 , 2학년 2.93 ± 0.76 , 3학년 3.07 ± 0.70 이었으며, 종교는 ‘있다’ 3.20 ± 0.64 , ‘없다’ 3.11 ± 0.52 , 부모 월소득은 ‘200만 원 미만’ 2.91 ± 0.76 , ‘200-400만 원 미만’ 2.96 ± 0.73 , ‘400만 원 이상’ 2.95 ± 0.74 를 나타내었다. 사회적 동기는 남자 3.17 ± 0.54 , 여자 3.31 ± 0.63 이었고, 학년은 1학년 3.25 ± 0.60 , 2학년 3.28 ± 0.68 , 학년 3.40 ± 0.62 이었으며, 종교는 ‘있다’ 3.37 ± 0.64 , ‘없다’ 3.29 ± 0.63 , 부모 월소득은 ‘200만 원 미만’ 3.17 ± 0.75 , ‘200-400만 원 미만’ 3.31 ± 0.59 , ‘400만 원 이상’ 3.38 ± 0.66 를 나타내었다(Table 3).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 수업참여도, 취업준비행동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학년별로는 1학년 3.25 ± 0.67 , 2학년 3.42 ± 0.73 , 3학년 3.53 ± 0.58 로 학년이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사후 검정으로 Scheffe 검증 결과 3학년이 1학년보다 높게 나타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종교유무에서는 ‘있다’ 3.49 ± 0.76 , ‘없다’ 3.37 ± 0.64 , 부모 월소득은 ‘200만 원 미만’ 3.35 ± 0.72 , ‘200-400만 원 미만’ 3.34 ± 0.64 , ‘400만 원 이상’ 3.55 ± 0.71 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아지는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 Characteristics | Division | N(%) |
|-----------------------|----------|------------|
| Grade | 1 | 128 (33.2) |
| | 2 | 139 (36.0) |
| | 3 | 119 (30.8) |
| Religion | Yes | 89 (23.1) |
| | No | 297 (76.9) |
| Parents' month income | <200 | 57 (14.8) |
| | 200-400> | 227 (58.8) |
| | ≥400 | 102 (26.4) |

*Parents' month income unit: ten thousand.

Table 2. Work valu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

| Characteristics | Division | Work value | Outer work value | Inner work value |
|-------------------------|-------------|-----------------|------------------|------------------|
| Grade | 1 | 3.82 ± 0.60 | 3.97 ± 0.66 | 3.70 ± 0.65 |
| | 2 | 3.92 ± 0.43 | 4.10 ± 0.43 | 3.78 ± 0.55 |
| | 3 | 3.85 ± 0.51 | 4.02 ± 0.56 | 3.72 ± 0.58 |
| | F (P^*) | 1.431 (0.240) | 1.880 (0.154) | 0.741 (0.478) |
| | | | | |
| Religion | Yes | 3.95 ± 0.48 | 4.05 ± 0.55 | 3.88 ± 0.55 |
| | No | 3.84 ± 0.52 | 4.03 ± 0.56 | 3.69 ± 0.60 |
| | F (P^*) | 0.327 (0.069) | 0.031 (0.795) | 0.767 (0.010) |
| Parents' month income** | <200 | 3.88 ± 0.44 | 4.07 ± 0.51 | 3.75 ± 0.57 |
| | 200-400 | 3.83 ± 0.49 | 4.01 ± 0.53 | 3.71 ± 0.57 |
| | ≥400 | 3.92 ± 0.60 | 4.08 ± 0.63 | 3.80 ± 0.66 |
| | F (P^*) | 0.972 (0.379) | 0.714 (0.490) | 0.864 (0.422) |

*P-value by t-test or one-way ANOVA.

**Parents' month income unit: ten thousand.

Table 3. Major selection motiv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

| Characteristics | Division | Major selection motive | Personal motive | Social motive |
|-------------------------|-------------|------------------------|-----------------|-----------------|
| Gender | Male | 3.00 ± 0.65 | 2.82 ± 0.90 | 3.17 ± 0.54 |
| | Female | 3.14 ± 0.54 | 2.96 ± 0.73 | 3.31 ± 0.63 |
| | F (P^*) | 2.629 (0.316) | 3.297 (0.470) | 0.707 (0.375) |
| Grade | 1 | $3.06 \pm 0.52^{a,c}$ | 2.87 ± 0.74 | 3.25 ± 0.60 |
| | 2 | $3.11 \pm 0.57^{a,b}$ | 2.93 ± 0.76 | 3.28 ± 0.68 |
| | 3 | $3.24 \pm 0.53^{b,c}$ | 3.07 ± 0.70 | 3.40 ± 0.62 |
| | F (P^*) | 3.373 (0.035) | 2.355 (0.096) | 1.873 (0.155) |
| | | | | |
| Religion | Yes | 3.20 ± 0.64 | 3.04 ± 0.85 | 3.37 ± 0.64 |
| | No | 3.11 ± 0.52 | 2.93 ± 0.70 | 3.29 ± 0.63 |
| | F (P^*) | 2.949 (0.152) | 5.279 (0.204) | 0.211 (0.321) |
| Parents' month income** | <200 | 3.04 ± 0.58 | 2.91 ± 0.76 | 3.17 ± 0.75 |
| | 200-400> | 3.13 ± 0.51 | 2.96 ± 0.73 | 3.31 ± 0.59 |
| | ≥400 | 3.18 ± 0.59 | 2.95 ± 0.74 | 3.38 ± 0.66 |
| | F (P^*) | 1.143 (0.320) | 0.139 (0.870) | 2.049 (0.130) |
| | | | | |

*P-value by t-test or one-way ANOVA.

^{a,b,c} Denoted by Scheffe's post-hoc analysis.

**Parents' month income unit: ten thousand.

Table 4. Major satisfaction, instruction participation,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

| Charac- teristics | Division | Major satisfaction | Instruction participation |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
|-------------------------|----------|--------------------------|------------------------------|---------------------------------------|
| Grade | 1 | 3.25±0.67 ^a | 2.82±0.60 ^a | 2.75±0.65 ^a |
| | 2 | 3.42±0.73 ^{a,b} | 2.92±0.62 ^{a,b} | 2.89±0.69 ^a |
| | 3 | 3.53±0.58 ^b | 3.03±0.64 ^b | 3.13±0.57 ^b |
| | F (P*) | 5.499 (0.004) | 3.512 (0.031) | 10.738 (0.000) |
| | | | | |
| Religion | Yes | 3.49±0.76 | 3.01±0.65 | 2.96±0.72 |
| | No | 3.37±0.64 | 2.89±0.62 | 2.90±0.64 |
| | F (P*) | 3.513 (0.155) | 0.009 (0.104) | 1.163 (0.514) |
| Parents' month income** | <200 | 3.35±0.72 ^{a,b} | 2.87±0.63 | 2.88±0.60 |
| | 200-400> | 3.34±0.64 ^a | 2.88±0.61 | 2.87±0.65 |
| | ≥400 | 3.55±0.71 ^b | 3.03±0.65 | 3.05±0.67 |
| | F (P*) | 3.729 (0.025) | 2.228 (0.109) | 2.931 (0.055) |

*P-value by t-test or one-way ANOVA.

^{a,b}Denoted by Scheffe's post-hoc analysis.

**Parents' month income unit: ten thousand.

경향이 있었다. 사후 검정으로 Scheffe 검증 결과, '400만 원 이상' 집단이 '200-400만 원 미만' 집단보다 전공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수업참여도를 살펴보면, 학년별로는 1학년 2.82±0.60, 2학년 2.92±0.62, 3학년 3.03±0.64로 학년이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사후 검정으로 Scheffe 검증 결과 3학년이 1학년보다 높게 나타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종교유무에서는 '있다' 3.01±0.65, '없다' 2.89±0.62, 부모 월소득은 '200만 원 미만' 2.87±0.6, '200-400만 원 미만' 2.88±0.61, '400만 원 이상' 3.03±0.65로 종교, 부모의 월소득에 따른 수업참여도는 집단 간에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취업준비행동에 따른 차이의 경우, 학년에서는 1학년 2.75±0.65, 2학년 2.89±0.69, 3학년 3.13±0.57로 학년이 높을수록 취업준비행동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고, 사후검정으로 Scheffe 검증 결과, 3학년이 1, 2학년보다 높게 나타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종교, 부모의 월소득에 따른 취업준비행동은 집단 간에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Table 4).

5.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직업가치관, 전공선택동기, 전공만족도, 수업참여도, 취업준비행동 상관관계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직업가치관, 전공선택동기, 전공만족도, 수업참여도, 취업준비행동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학년과 전공선택 동기($r=0.126$), 전공만족도($r=0.166$), 수업참여도($r=0.134$), 취업준비행동($r=0.227$)과는 양의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경제수준과는 전공만족도($r=0.114$), 취업준비행동($r=0.100$)이 통계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

Table 5.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general characteristic, major selection motive, work value,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 Variables | Work value | Major selection motive | Major satisfaction | Instruction participation | Employ- ment preparation behavior |
|-----------------------|---------------|------------------------------|-----------------------|------------------------------|--|
| Grade | 0.026 | 0.126* | 0.166** | 0.134** | 0.227** |
| Parents' month income | 0.034 | 0.074 | 0.114** | 0.092 | 0.100* |

* $P<0.05$, ** $P<0.01$ by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Table 6.** Regression analysis for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 Variables | B | SE | β | t | P* |
|---------------------------|--------|------|---------|--------|------|
| Grade | 0.096 | .032 | .117 | 2.991 | .003 |
| Parents' month income | 0.017 | .040 | .016 | .411 | .681 |
| Work value | -0.020 | .051 | -.016 | -.392 | .695 |
| Major selection motive | 0.043 | .055 | .036 | .783 | .434 |
| Major satisfaction | 0.243 | .047 | .250 | 5.130 | .000 |
| Instruction participation | 0.499 | .044 | .477 | 11.270 | .000 |

 $R^2=0.446$, Adjusted $R^2=0.438$, $F=50.915$ $P<0.001$.*by regression analysis at $\alpha=0.05$.

었다(Table 5).

6. 취업준비행동에 대한 회귀분석

취업준비행동을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 분석한 결과, 적합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P<0.001$), 모형 설명력은 44.6%로 나타났다. 선정된 독립변수들 중에서 취업준비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학년($P<0.001$), 전공만족도($P<0.001$), 수업참여도($P<0.001$) 이었다. 즉, 학년이 높을수록, 전공만족도, 수업참여도가 각각 높을수록 취업준비행동이 높게 나타났다(Table 6).

고 안

직업이 생활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하여 자아실현을 성취하는 것은 한 개인의 삶에 있어서 행복을 좌우하는 척도이다¹²⁾.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로 비롯된 사회적 불안정은 높은 실업률과 함께 대학사회까지 파급되어 대학생들의 학업, 진로, 취업영역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들이 야기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치위생과 학생들의 직업가치관, 전공선택동기, 전공만족도, 수업참여도와 관련 변인으로 취업준비행동을 제시하여 이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직업가치관은 개인이 직업을 통하여 충족하고자 하는 욕구 또는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로서 직업을 선택하거나 직업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가치를 중요시하는지에 대한 관점을 의미한다. 연구대상자의 직업가치관에 관한 견해에서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여자가 남자보다 외

재적 가치관, 내재적 가치관 모두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여학생과 남학생 모두 경제적 안정, 근무환경, 능력발휘를 공통적으로 중요시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Jo⁶⁾와 Chang⁷⁾의 연구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이는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청년실업 문제의 해결이 주요 국정과제가 된 우리 사회에서도 청소년들이 경제적 안정성, 근무환경의 가치를 중요시 하는 경향이 증가될 것으로 생각된다.

전공선택동기는 자신이 원하는 진로목표와 자기이해, 환경,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 대학 전공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선택 가능한 전공을 고르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¹³⁾. 연구대상자의 전공선택동기 유형에 관한 견해를 살펴본 결과, 성별, 학년, 부모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는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Park²⁾과 Kang²⁾과 Shin¹⁴⁾의 연구결과와는 비슷한 맥락을 보였으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개인적, 사회적 전공선택동기가 높으며 부모의 월소득이 낮을수록 개인적 동기가 높다는 Han⁴⁾의 연구보고와는 상이함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점은 학과특성이 동일하지 않아 비교기준을 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진학 자체에만 목표를 두고 전공을 선택한 경우에는 본인의 미래 직업에 대해 막연하게 생각하고 진로 결정에 어려움을 느껴 취업에 대한 의지와 자신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진로목표를 세우고 그에 따른 진로 결정을 한 경우에도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진로준비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려우며,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본인의 적성이나 흥미를 고려하지 않은 진로결정은 향후 직업생활을 지속하는 데 있어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초래할 수 있다¹⁵⁾.

전공만족도는 전공 교과를 공부하면서 자신의 욕구 수준이 충족되고 있다고 느끼는 주관적 즐거움과 개인의 미래와 진로에 대한 긍정적 사고가 결합되어 나타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¹⁶⁾. 전공만족은 대학생활 만족 뿐만 아니라 미래의 진로 결정에도 영향을 주는 요인이며¹⁷⁾, 자신이 소속된 전공학과가 자신의 이상이나 미래의 진로 또는 직업에 대한 기준과 일치한다면 전공만족도는 높고¹⁸⁾, 진로 미결정 수준이 높은 학생들의 전공만족도는 낮게 나타났다¹⁹⁾. 수업참여도는 학습자의 학습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와 활발성이 겹으로 나타나면서 수업과 긴밀한 관련을 맺는 개념으로서 근래에는 수요자 중심 또는 학생중심의 교육이 강조됨으로써 교수자의 특성과 교수 학습 방법, 그 밖에 수업에 있어서 적극적인 학생들의 수업 참여가 수업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²⁰⁾.

연구대상자의 전공만족도와 수업참여도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부모의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나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Park²¹⁾의 제주지역 치위생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보고와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었고,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고연령의 학생일수록 높고, 계열 간에도 차이가 있어 보건간호계열에서 만족도가 가장 높다고 보고한 것²²⁾과 일맥상통한 점이 있었다. 대학생들의 취업준비행동은 취업이라는 당면 목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이 필요한 정보를 수집·활용하고 직업세계에서 필요한 역량을 준비해 나가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²³⁾. 취업준비과

정에서 이루어지는 취업준비행동으로는 학점관리, 면허증 취득, 자기소개서 작성, 인터뷰, 직업교육훈련, 인턴체험 등 전공에 따라서 자신의 취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포함된다.

본 연구대상자의 취업준비행동은 학년별로는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적극적으로 취업준비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Han⁴⁾의 조리·외식관련 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성과와 유사하였다. 치위생 학생들은 다양한 교내 실습과 의료기관 현장실습을 통하여 교육현장에서 강조하는 전문 기술직에 대한 의식 증대와 국가시험을 비롯하여 전문직에 필요한 다양한 자격증 취득이라는 당면과제로 취업이 임박한 고학년일수록 취업과 관련된 고민과 노력이 증가하는 현상으로 생각할 수 있다. 취업준비행동이 직업가치관, 전공선택동기, 전공만족도, 수업참여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취업준비행동을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 분석한 결과, 학년, 전공만족도, 수업참여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로 작용하여 학년이 높을수록, 전공만족도, 수업참여도가 높을수록 취업준비행동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학과 특성화, 차별화에 따른 질적 수준을 높임과 동시에 진로적성 검사, 개별상담 서비스, 취업관련 교육을 비롯하여 수요자의 필요도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일부 3년제 치위생과 학생만을 대상으로 연구하였으며, 자료 수집은 설문지를 통해서 수집되었고 설문에 참여한 학생들의 주관적 기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과 조사대상이 임의적으로 표집된 점에서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4년제 치위생대학과 비교분석, 설문지법 이외 질적 연구방법을 병행한 연구 결과를 활용한다면 교육현장에서의 취업관련 프로그램 개발 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

본 연구는 전문대학 치위생과 학생들의 취업준비행동과 직업가치관, 전공선택동기, 전공만족도, 수업참여도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진로교육 및 취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016년 11월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국내 전문대학 3개 대학 치위생과 재학생 386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를 이용하여 일반적 특성, 직업가치관, 전공선택동기, 전공만족도, 수업참여도, 취업준비행동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고, 수집된 모든 자료는 SPSS 24.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학년이 올라갈수록 전공만족도, 수업참여도, 취업준비행동이 높았고($P<0.001$), 부모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2. 전공선택동기, 전공만족도, 수업참여도, 취업준비행동과는 유의한 상관성이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취업준비행동에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요인은 학년, 전공만족도, 수업참여도 이었다. 즉, 학년이 올라갈수록, 전공만족도, 수업참여도가 높을수록 취업준비행동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치위생학생의 취업준비행

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취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과과정 개선을 비롯하여 체계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취업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References

1. <http://kosis.kr>[Internet]. [cited 2018 May 20]. Available from: <http://kosis.kr/statisticsList>.
2. Park JH, Kang SU. A study on the major satisfaction and major accomplishment related on the major selection motivation in students of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J KAFA 2015;7:7-12.
3. Yang SY, Son GY, Cho MS, Oh SH. Awareness towards employment in the dental hygiene students. J Korean Soc Dent Hyg 2015;15:613-621.
4. Han YJ. The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gree of instruction participation and major satisfaction and the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by the major selection motive and their work valuers of University students[dissertation]. Busan:Kyung Sung University;2013. [Korean].
5. Lim E, Park BK, Hyun JS. Work value shifts of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from 2001 to 2011. J KRIVET 2012;25:19-37.
6. Jo YS. The analysis of job preparation activities by work value. J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 Soc 2013;14:1690-1698.
7. Chang GH. A study on the work values of the college students. J Korean Soc Clothing and Tex 2007;32:139-142.
8. Kim YH, Kim KE, Choi JH. Career decision-making styles and career maturity amongst Korean undergraduate students. J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1;12:1223-1233.
9. Lee JK, Kim DI.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of the college students:a developmental perspective. J Youth Counseling 2004;12:107-123.
10. Lee NY. Analysis of four-year college female students'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s by major field[master's thesis]. Seoul: Sookmyung Women's University; 2011. [Korean].
11. Kim BH.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the college students[dissertation].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1997. [Korean].
12. Ahn KH, Lee YH. A study on the types of work values of the junior college students. J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1998;17:1-17.
13. Lee GN, Jyung CY. The development of college major selection program model for high school students. J Agricultural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2009;41:87-110.
14. Shin J. The effects of motivations for major choice of university students on the job preparation[master's thesis]. Seongnam: Gachon University; 2012. [Korean].
15. Jung EJ. The effect of self-leadership on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for aspiring flight attendants in college[master's thesis]. Suwon: Kyonggi University; 2014. [Korean].
16. Lee DJ. The relationships among satisfaction in major, gender identity, and gender stereotypes of male nursing students[master's thesis]. Seoul:Yonsei University;2004. [Korean].
17. Lee JH, Lim ST. The moderating effects of college students' career maturity on the relations between satisfaction of major and career stress. J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2011; 30:133-146.
18. Yeo WS, Lee YJ. The effects of the major selection factors and satisfaction on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collegers. IJTHR 2013; 27:441-455.
19. Lim EM, Park SM, Eom YS. The differences of college students' department and job selection, major satisfaction according to career indecision. KJYS 2009; 16:33-50.
20. Kim B. The influence of enjoyment factor in physical education class on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stress relief and participation[Master's thesis]. Seoul:Kyunghee University; 2015. [Korean].
21. Park KS. Self-efficacy and the satisfaction on dental hygiene-majoring students[master's thesis]. Jeju: Jeju National University; 2015. [Korean].
22. Moon JH, Oh MD, Jung MH, Choi IK, Kim JH, Lim SK. A study on the student satisfaction survey of general education in college. J KOHVEA 2005; 11:283-314.
23. Lee JK, Kim DI.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of the college students: focused on the psychological differences. J Counseling 2004;5:993-1016.